

광주복지, 혁신에 협치를 더하다

제2기 복지협치위원회 출범...민·관·정 대표 94명 참여
노인·장애인 등 8개 분과위 운영...상시소통체계 구축
시민이 체감하는 보편적 복지정책 발굴·현안 협력 등



광주시는 지난 2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2기 복지협치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은 이용섭 시장의 위원 위촉장 수여, 공동위원장인 김전수 광주사회복지협의회장, 신수정 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의 복지협치 선언문 낭독, 퍼포

‘복지협치기본조례’가 전면 개정되면서 복지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위원을 기존 24명에서 94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특히 노인·장애인·출산보육 등 8개의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보편적인 복지정책을 중점 발굴해 실천한다. 이를 통해 복지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올해는 복지협치학교 운영과 워크숍을 통해 협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치위원의 역량 강화에 적극 나선다.

이 밖에도 분과위원회와 실무협의회, 전체회의 운영 등을 통해 발굴·제안된 협치제외의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토론회, 포럼 등을 개최하는 등 복지협치의 실행력을 높이고, 복지협치 기본계획 수립과 전담기구 운영 등 광주복지협치의 토대를 구축한다.

이용섭 시장은 “민간과 행정, 의회가 협력해 함께 누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겠다”며 “제2기 복지협치위원회를 통해 복지역량이 강화되고 다양한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망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윤희기자



함평군 학교면 맞춤형복지팀이 사례관리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함평 학교면, 코로나 극복 힐링프로그램 진행

‘칠교놀이 꾸러미’ 활용

함평군 학교면은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을 호소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재밌는 칠교놀이 꾸러미를 활용한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칠교놀이는 색과 형태가 다른 일곱 개의 조각을 이용해 다양한 모양을 만드는 전통놀이로 사고력 향상과 뇌운동·소근육 발달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교면 맞춤형복지팀은 통합사례조사를 통해 발굴된 사례관리대상자 6가구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코로나 블루 극복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특히 우울 고위험군과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집중 관리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과 돌봄 공백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옥미 학교면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집콕 생활로 힘들어하는 지역주민의 우울감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며 “적극적인 사례발굴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함평=김광훈기자

장흥군 회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독거 어르신 반찬 배달·안부 살피기’

회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영양 보충을 돕기 위해 23일부터 독거 어르신들에게 ‘영양 듬뿍, 독거 어르신 반찬 배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70세 이상 독거 노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회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 특화사업으로 반찬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16가구를 선정, 회진면사무소 복지팀 직원들이 2개 조로 나누어서 직접 반찬 배달과 취약 계층의 안부를 살피고 있다.

이 중 6가구는 장흥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한 생활지원사들이 대상 어르신의 집을

방문해 말벗도 해드리면서 4종류의 반찬을 매주 화요일 월 2회 전달한다.

반찬을 전달 받은 한 주민은 “거동이 불편하고 코로나19로 외출이 힘든 상황에 반찬을 배달해 주니 큰 도움이 된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회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살필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장흥=김도영기자

강진군 보건소, 2021년 국가 암 검진 적극 수검 당부

무료 국가 암 검진사업 연중 추진

강진군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무료 국가 암 검진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올해 국가 암 검진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홀수년도 출생자로 ▲위암(만 40세 이상 남녀) ▲간암(만 40세 이상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자궁경부암(만 20세 이상 여성) ▲유방암(만 40세 이상 여성) ▲폐암(만 54세~74세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대장암(만 50세 이상 남녀, 짝수년도 포함)이 대상이다.

검진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송부한 검진표 및 신분증 지참 후 관내 암 검진기관(강진의료원, 오케이내과의원, 우리들내과의원) 또는 전국 국가 암 검진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국가 암 검진을 통해 6대 암(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폐암)으로 확진된 건강보험가입자(하위 50%)는 연간 최대 200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모든 암종에 대해 연간 최대 220만원의 암 치료비를 연중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

다.

또한 코로나 19 장기화로 검진기관 이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국가 건강검진 한시적 연장조치에 따라 지난해 국가 암 검진 미수검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올해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서현미 보건소장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암은 조기에 발견·치료가 중요하다.”며 “하반기에는 암 검진 희망자가 밀집되어 검진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꼭 미리 검진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강진=김영일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